십자가와 제자훈련(II), 제자 진단
(마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제자훈련, 제자 진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훈련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에 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이루도록 도울 제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진단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 진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제자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이유는 성경구절들 때문에 그러실 것이에요.

성경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걸림이 될까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인품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성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원활하게 그리고 점점 친숙하게 점점 깊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승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자기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인격체로서 예수님 닮은 품성을 가진 인격으로 성장하

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시험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품성으로 변화했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증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얘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누가복음 14장 17절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 육신으로 살아 계시던 그 시절 그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추종자들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었습니다. 제자와 스승 말고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선생이라 부르는 제자들의 부름을 그대로 용납하고 계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은 물론 그리스도이십니다만 그리스도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간헐적으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어떤 자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의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뿐이지 아직 베드로의 인격 속에는 그리스도를 상대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선생의 제잡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동안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십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숨기시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도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숨기십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나라를 독립시킬 분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해를 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짚을 것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도는 도대체 다른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상한 제자의 도예요. 그 당시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스승으로 따를 바에는 아무도 제자 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완성하려고 제자가 되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경우에 완성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

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죠. 혹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도중에 인내를 요구하고 자신을 억제해야 될 요청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과정은 제자에게 요청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불렸지만 실상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다른 관계가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때에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면서 나와 연합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로 마음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다는 말이 걸림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은 내일 말씀드리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나의 제자들,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제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하여 권세라는 말을 한번 유의해 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피조의 세계를 말합니다. 피조의 세계, 그것이 하늘이건 땅이건 통틀어 모두다 그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에요. 원래 주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 지어서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뭔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모름지기 권력다툼의 틈바구니 안에 끼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원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인데 새삼스럽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한 것은 이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과 연관 지어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니까 죄인들이 어떤 다른 권세에 휩싸여 있거나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다, 누가?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될 자들의 상태가.
그러면 이 권력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삼박자 축복 할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었다. 그 죽은 상태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삼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공중의 권세를 지금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과 공중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삼 층의 구조가 우리 사람에게 적용될 때 영과 혼과 육이라는 삼개 층의 구조와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과 땅 천국이라는 이 구조 하에서 움직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특히 바울서신은 이 구조 안에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상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마음의 처소가 공중입니다. 몸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떠했어야 됐습니까? 마음은 향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향할 수도 있고, 자식을 향할 수 있고, 미국에 가 있는 애인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계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마귀가 끼어들어 오면서-원래 마귀는 권세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죄를 질 수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나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나무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사자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도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죄를 질 수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생래적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나무와 사자와 다를 게 없지요.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만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그 죄를 질 수 있음을 이용해서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만듭니까?
바로 몸을 향하게 만듭니다. 몸을 향하게 만들어서 몸에 묶여버리게 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마음은 몸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몸의 눈과 귀, 코와 입과 피부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사람과 사물과 일과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면서 울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몸에 묶여서 몸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이 땅의 환경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상태가 인간입니다. 원래는 사람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에 반응하며 살았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면서 우리 마음이 살아가야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몸에 묶여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진단해 내야만 우리가 제자훈련이 가능한데, 이 상태를 주님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천국복음을 갖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몸에 마음이 묶여있으면서 몸이 처하고 몸이 느끼는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얘기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이 온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마음이 몸에 묶여서 이 세상을 울고불고 난리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TV를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연예 다방면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드라마, 예능프로, 뉴스 등.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당신 딴에는 세계 제 일의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계시지만 그 흑인의 짧은 머리 바짝 마른 몸매, 그 몸에 마음이 묶여서 그 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으로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시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음이 여전히 그 몸에 묶여서 몸으로 느끼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마음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마음이 몸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과녁이 빗나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리고 몸이 느끼고 있는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딴에는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딴에는 경륜을 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음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 기진함이라' '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연예인들을 봅니다. 자기 딴에는 예쁘다고 생각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몸에 마음이 묶여서 몸이 느끼는 삶의 환경에 좌우되면서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희 씨를 봅니다. 몇 천 억의 개인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몸에 마음이 묶여서 몸이 느끼는 재산을 관리하고 몸이 느끼는 이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상태대로 남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피조의 세계 전체의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하늘에 올라가 앉은바 되었습니다.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앉은 자로서 재벌을 보며 대통령을 보며 천황을 보며,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왕 족속 스웨덴 왕이라든지 이라크 왕이라든지, 대통령 족속 이 나라 대통령 저 나라 대통령, 그리고

교수 족속 의사 족속 재벌 족속, 아니면 가난한 족속 부자 족속, 배운 족속, 못 배운 족속, 땅에서 몸에 묶여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있으면서, 그 주님의 권세와 함께 우리가 묶여있으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일본 천황이 마음이 몸에 묶여 있어 마음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라면 그를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빌 게이츠가 아직도 몸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면 그를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건희 씨가 아직도 몸에 묶여있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돈의 권세에 밀려가지고 그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 중에 이건희 씨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회장님, 회장님 하고 쩔쩔매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였으니까 이건희 씨 위의 천국에 있으니까 땅에서 기고 있는 이건희 씨를 제자로 삼으라는 얘깁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대한민국에서 하늘을 찌르지만 그러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장관이고 차관이고 동회서기라도 대통령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얘깁니다.

왜? 나와 연합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과감하게 내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이 사도바울에게 '네가 지금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왕에게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왕을 제자 삼아 버립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고 있으니까…

제자의 상태를 이 천국과 공중과 이 땅이라고 하는 3층 구조로 진단해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몸에 묶여서 쩔쩔매고 있구나,
'김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잘 들어 주시잖아요, 기도 좀 해 주세요!'
그때 3층 구조를 가지고 들이 대 봅니다. '아, 이분의 마음이 몸에 묶여서 사업이라고 하는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있구나!' 다 알아채는 겁니다.

이 3층 구조가 아니면 그 상태를 진단해 낼 방법이 없어요. 몸에 묶여 있느냐, 몸에 묶여서 몸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돈에 빚을 내서 잔치를 벌입니다. 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꼭 울고불고 할 일만 생겨야 몸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돈 벌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제자의 상태를 확인해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가 몸에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제자훈련을 시키는 앞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제자의 상태를 진단해 내는 것인데, 마음이 이 몸을 떠나게 돼서 몸이 처한 이 세상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불참하는 거지요. 삼박자 축복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에 불참하게 될 때에, 세상에 대한 불참을 제시하게 되면 '이것이 당신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다'라고 세상에 불참을 선언하고 하늘에 참여를 얘기하게 되면, 세상의 불참에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두려움을 갖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물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활동을 보라, 이제 그 보는 눈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입히시고 너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보라, 몸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백 프로 책임지신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다는 말만큼이나 어색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건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떻게 완전히 불참하느냐, 회의석상에서 빠져나오듯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늘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되겠느냐?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백 퍼센트 움직여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제자 삼을 자격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죄의 대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서 먹게 되는 상황은 죄의 결과요 저주입니다. 저주의 내용이에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주 업무였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게 아담의 주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목구멍 풀칠하는 게 주 업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 몸에 묶여서 몸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라 가서 원래 가야될 하나님을 비껴가면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마음이 몸에 떨어져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 그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죄가 사해져서 마음이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이세상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이 세상의 삶은 백 프로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게 됩니다.
내 직장과 내 학교생활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이루시려는 뜻 속에 있는 활동이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 활동이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활동의 현장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신 없어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백 프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삶을 떠맡아 주시고 진행시켜 주심에 대한 마음의 확증과 경험이 있어야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 세상에, 몸에, 그리고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니까…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사회생활 관계, 모든 관계가 내 마음이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증이 있어야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말에 기초해서 권력다툼의 틈바구니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제가 독일에 가서 논문을 쓰기 위해 지도교수님을 만났을 때, 지도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의 현재 신학적인 경향이나 신학적인 능력이나 또, 독일어를 가지고 신학적 사고를 표현해 낼 수 있는 표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나의 제자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작은 논문을 하나 써 오세요. 제목은 마음대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신학적인 경향이 표현되고 있으며 얼마나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어떤 성향을 띠고 있고 어떻게 독일어로 그 신학적 사고를 표현해 내는지 보고 난 다음에 나의 제자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에요.

독토파터(Doktorvater)는 독토란트(Doktorand)를 경향을 보고 선택하여 제자로 삼지만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재벌총수도 대통령도 천황도 서울역 앞에서 지게를 지시는 분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를 삼을 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바로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는 3층 구조를 들이 댔을 때, 그의 마음이 지금 몸에 묶여서 이 세상을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3층 구조를 통해서 제자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몸에 묶여 있구나, 몸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제 제자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훈련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몸에 묶여 있고 몸이 접하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로부터 마음이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빠져나오고…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빠져나오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참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땅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내일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이 3층 구조는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왜 슬픕니까? 몸에 묶여 있고 몸이 접한 교회 현실 - 목사님 같으면 - 몸이 접하는 가정의 현실, 몸이 접하는 자식의 현실, 몸이 접하는 회사의 현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말대로 한 번 그 현실에 대해 죽으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보세요. 잘 안되면 내일을 기대하시고 내일 말씀을 통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훈련, 제자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 상태점검의 방법으로 나를 먼저 점검해 보시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복음을 이 땅에 갖고 오신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현실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띠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에도 이 세상 모든 족속이 이렇게 불쌍히 보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과 공중과 이 땅이라고 하는 3층 구조 안에서 언제나 내 생각이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